

December 1, 2016

## Africa

### 에티오피아, 2년 안에 BT면화 상용화 예정

에티오피아 농업연구소(Ethiopian Agricultural Research Institute)의 농업생명공학 부서 책임자인 Endale Gebre 박사에 따르면 에티오피아는 2년 안에 BT면화를 상용화하기 위해 준비 중에 있으며, 현재 BT면화에 대한 시험 격리 재배가 최종 단계에 들어섰다고 밝혔다. 이번 시험 재배는 인도와 수단으로부터 도입한 4개 BT면화 품종을 대상으로 4년에 걸쳐 실시했다. 그는 시험 재배의 결과들이 BT면화의 수확량, 목화다래벌레에 대한 저항성, 제초제 사용량, 그리고 이 외에 농장에서 소요되는 지출비용 등에 미치는 영향들을 설명해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Gebre박사는 또한 BT면화는 지난 20년 동안 비난을 받아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BT면화는 인도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특히 95%의 소작농민들이 사용하고 있다. 이는 BT면화가 에티오피아 농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농업 경제에도 보탬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Gebre는 2016년 11월 아프리카 사절단의 일원으로 인도의 BT면화 농장을 방문하기도 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Africa Business Communities

## Asia and the Pacific

### 호주유전자기술규제국, GM밀의 시험재배 승인 신청을 받아

호주 유전자기술규제국(OGTR)은 호주연방과학원(CSIRO)으로부터 병 저항성, 내건성 및 오일 함량이 높은 유전자변형 밀의 시험 재배 승인 신청을 받았다.

이 시험재배 신청은 2017년 5월부터 2022년 5월까지 호주 수도 지역과 뉴사우스웨일즈의 1 헥타르 면적에 이르는 2곳에서 실시 될 예정이다. GM 밀과 도입

된 유전물질의 잔존성과 유포를 막기 위한 철저한 통제가 이루어 질 것이다. 이 GM밀은 식품이나 동물의 사료로 사용되지 않을 것이다.

OGTR은 시험 재배 승인 신청에 대한 위해성 평가관리계획을 준비하고 있으며 2017년 2월 공청회를 통해 전문가, 전문기관, 당국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의견 제출 기간은 30일이다.

더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OGTR website](#)

## Research

### 아스타잔틴 생산 옥수수 개발

독일 프랑크푸르트 괴테 대학의 연구진들은 어류 사료에 중요한 아스타잔틴 (astaxanthin)이라고 불리는 카로티노이드를 생산하는 생명공학 옥수수를 개발했다. 연구진들은 GE옥수수에서 얻은 아스타잔틴을 무지개송어(rainbow trout) 육질의 색소 착색을 개선시켜 사료첨가제로서 사용될 수 있는지 평가하였다. 초기 시제품은 너무 기름기가 많고 농도가 충분하지 못해 가공과정을 통해 보다 개선된 제품을 만들게 되었다.

연구팀은 개선된 아스타잔틴 시제품을 송어에게 사료 시험을 실시하였다. 시험 결과 송어 살코기의 3.5 µg/g dw 를 포함한 아스타잔틴을 생산하는 GE옥수수의 색소는 화학적으로 합성된 아스타잔틴과 비슷한 효과를 확인하였다. 이는 GE옥수수가 어류 사료용 아스타잔틴 생산의 주요 공급원이 될 수 있음을 암시한다.

더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Announcements

식물 게놈 및 유전자 편집 학회 - 유럽

주제: 식물 게놈 및 유전자 편집 학회 - 유럽

장소: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Beurs van Berlage

일시: 2016년 3월 16일부터 17일까지